



2017.05



홈페이지: <http://iscenter.or.kr> 이메일: iscenter2015@gmail.com
주소: (150-300)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47길 2 2층
전화번호: 070-7631-0615

목차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임금보고서 2016/17: 직장 내 임금 불평등 [3](#)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12](#)

2. 같이 한걸음

-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 [17](#)

3. 변화의 물결

- 사드 배치 반대와 평화 투쟁의 선봉에 선 소성리 주민들 [22](#)

4. 국제뉴스

- [프랑스] 왜 권력은 사회당을 약화시키는가? [28](#)
[라틴아메리카] 레닌 모레노 후보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 [35](#)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임금 보고서 2016/17: 직장 내 임금 불평등

(맨위로)

번역 : 황정은(사무처장, ISC)

심태은(The 숲 편집장, ISC)



1부. 임금 관련 주요 동향

맥락

지난 몇 년간 임금 동향 파악과 임금 정체를 방지하는 지속 가능한 임금 정책의 시행, 세계 곳곳의 수백만 빈곤 노동자의 임금 상승, 공정한 분배 보장, 심각한 임금 및 소득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경제의 한 축으로써 소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세계적인 임금 상승률 둔화

2016/17 <세계 임금 보고서> 1부에서는 2008-09년 금융 위기 이후, 2010년에 세계 실질임금 상승률이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2012년부터 상승률이 둔화되었고, 2015년에는 2.5%에서

1.7%로 4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중국을 빼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2년 1.6%에서 2016년 0.9%로 더 떨어진다.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낮은 임금 상승률

금융 위기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보인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이 세계적으로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가 둔화되거나 역전되었다. 신흥 경제국과 G20개발도상국에서 실질임금 성장률은 2012년 6.6%에서 2015년 2.5%로 떨어졌다. 지역별 임금 성장률을 보면, 2015년 아시아에서 실질임금 성장률은 4%로 비교적 탄탄했지만 중앙 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는 3.4%로 하락했고, 아랍에서는 잠정적으로 추산했을 때 2.1%, 아프리카에서는 2%에 그쳤다. 2015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에서 실질임금 성장률은 1.3%(브라질에서의 임금 하락이 주요 원인), 동유럽에서는 5.2% 하락했다(러시아연방과 우크라이나에서 임금 하락이 주요 원인).

선진국의 높은 임금 상승률

이와 대조적으로 선진국의 임금 상승률은 증가했다. G20선진국의 실질임금 성장률은 2012년 0.2%에서 2015년 1.7%로 올랐고, 이는 10년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2015년 실질임금 성장률은 미국이 2.2%, 북유럽, 남유럽, 서유럽을 통틀어 1.5%, 유럽연합 국가 1.9%로 올랐다. 미국과 독일에서 실질임금 성장률이 높았는데, 이는 임금 동향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한다. 아직 이러한 임금 상승이 향후 계속될 것인지, 선진국에서 이전과 같은 임금정체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여러 국가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서, 임금 하락 자체가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디플레이션 임금-물가 악순환¹이 나타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의 임금 성장률 회복세가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하락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낮아진 임금 성장률 격차는 두 그룹의 국가 간 임금 수렴과정이 둔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노동소득 분배율²의 복합적 추세

실질 임금 동향은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물가상승과 같은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다른 요인도 작용한다.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최근 몇 십 년 간 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뒤떨어져 결국 GDP의 노동 분배율이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많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화, 숙련 노동자 중심의 기술, 노동시장제도 약화, 대기업에서

¹ Wage-price spirals. 물가와 임금이 번갈아 올라가는 현상

²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생산된 잉여를 투자자에게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압박 증가와 같은 요인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07-10년 사이에 많은 국가의 노동 분배율이 예상대로 경기에 대응하여 상향 움직임을 보였고, 이후 2010-15년에 일부 주요 국가에서 노동 분배율이 다시금 장기적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국, 독일, 미국은 제외되었지만, 이 국가들도 노동 분배율이 최고 수준보다 훨씬 낮았다.

임금 불평등과 최저임금

평균임금으로는 여러 임금노동자 그룹 간에 임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알 수 없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임금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불평등 수준이 노동자 개인과 생산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불평등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심화된 임금 불평등과 가구 소득 불평등, 노동 분배율 감소 간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고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하거나 강화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할 시,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대다수가 여성)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설정은 균형을 잡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 설정은 증거를 기반으로 추진 해야 하고, 사회적 동반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 시에는 이들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여러 국가에서 중위임금에 비례한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 수치를 보여준다.

성별 임금 격차

전반적인 임금 분배에서 다양한 노동자 그룹간의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이 중 하나가 성별 임금 격차 인데, 남성 평균 임금에 비해 낮은 여성 평균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국가 대부분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전반적으로 좁혀지긴 했지만 없어지지 않는 않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의 최신 추산치를 볼 수 있다. 이 수치는 국가별로 0에서 45%까지로 다양하다.

2부. 직장 내 불평등

상위에서 심해지는 임금 불평등

한 국가의 임금 불평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한 국가 임금 노동자를 임금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고 10개의 그룹(10분위수)이나 100개의 그룹(100분위수)로 나누어 살펴본 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분포 전반에 걸쳐 임금이 점진적으로 오르고, 상위 10%에서는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특히 상위 1%에서는 가장

급격하게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럽에서 임금소득 최상위 10%는 각 국 모든 노동자의 총 임금의 평균 25.5%를 받는다. 이는 하위 50% 노동자가 받는 금액(29.1%)과 비슷하다. 엄밀히 말하면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은 신흥 경제국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브라질 35%, 인도 42.7%, 남아프리카 49.2%이다. 남아프리카와 인도는 하위 50%가 각각 총 지불 임금의 11.9%, 17.1%를 받는다.

임금 분포의 실질적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자 특성

본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기술 관련 특성(교육 수준, 나이, 근속 기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도 임금과 임금 불평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성별, 기업 규모, 계약 형태, 노동 분야가 큰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표본의 기술통계는 대학 학위가 반드시 고액의 보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또한, 고액 연봉 노동자 중에서 부동산과 금융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고액 보수를 받는 십분위로 올라갈 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입증한다. 유럽을 예로 들면, 가장 보수가 낮은 3개의 십분위 그룹에서 여성의 비율은 평균 50-60% 이고, 이 수치는 가장 임금이 높은 상위 10%에서는 35%로 상위 1%에서는 20%로 떨어진다.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차이는 극심해진다. 본 보고서에서 교육 수준, 나이, 근속 기간과 같은 개인의 기술관련 특성에 기반한 임금을 설명하기 위해 표준 모델을 운영해 보았지만, 유의미한 임금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다. 실제로 개인의 실질 임금과 기술 관련 특성에 따라 예측한 임금 사이에는 큰 차이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기업³ 간 불평등의 역할

기존의 개인 기술관련 특성이 임금의 차이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자, 직장이 임금 불평등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 시작했다. 최근 문헌에서 보이는 기업 간 불평등(기업 간 평균 임금의 차이로 측정) 증가는 1981~2013년 사이 미국의 임금 불평등이 심해진 주요 이유이자, 브라질에서 1996~2012년 사이 임금 불평등이 감소한 이유이다. 미국에서 기업 간 불평등이 높아 일부 기업에 몰려있는 고숙련 노동자와 다른 부문에 모여 있는 저숙련 노동자 사이에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는 주변 활동을 하청이나 가맹점으로 아웃소싱하거나 구조조정하는 추세와 일치한다. 브라질에서는 높은 최저임금이 기업 간 불평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기업 간 불평등의 정도

본 보고서에서 개인 간 임금 불평등이 낮으면 기업 간 임금 불평등도 낮으며(스웨덴과 노르웨이) 전자가 높으면 후자도 높은 경우(영국과 루마니아)가 많은 국가에서 보이며 두 가지 불평등이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업 간 불평등은 선진국에서보다

³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enterprise)”와 “기관(establishment)”을 구분 없이 사용했다.

개발도상국에서 높게 나타난다. 선진국에서 상위 10% 기업의 평균 임금은 하위 10% 기업의 평균 임금보다 약 2-5배 높으며 이 비율은 베트남에서는 8배, 남아프리카에서는 12배로 높아진다. 또한, 낮거나 높은 평균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은 영국에 비해서 노르웨이는 중간 수준의 평균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다.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임금과 중간임금을 지불하는 대다수의 기업과 훨씬 높은 평균 임금을 지불하는 소수의 기업 간의 차이가 큰 경향을 보인다.

기업 내 불평등의 역할

최근 임금 동향에서 기업 간 불평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것이 항상 전체 임금 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아니다. 이전 기록에서는 미국에서 전체 임금 불평등의 주요 요인은 기업 간 불평등보다는 기업 내의 불평등이라고 보았다. 최근 임금 불평등에서 기업 간 불평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지만 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대기업” 노동자 사이에서는 기업 내/간 불평등 거의 같은 정도로 모두 상당히 증가했다.

유럽의 임금 불평등 피라미드

2010년 유럽에서는 기업 내 임금 불평등이 전체 임금 불평등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기업의 평균 임금 순위와 각 기업의 최저 및 최고 임금을 살펴본 결과, 유럽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기업에서 기업 내 임금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노동자가 받는 임금과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기업의 평균 임금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80%)이 기업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래프의 저점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은 소속된 기업의 평균 임금을 훨씬 밑돌았는데, 이는 부당한 저임금 지급으로 인해 해당 기업 내 임금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프의 고점에 있는 0.1%의 개인은 소속 기업의 평균 임금이 시간당 45 유로이지만 시간당 211 유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래픽을 활용하여 일부 기업이 소수에게 지급하는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심각하게 불평등한 임금 재분배의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임금 불평등의 정도와 수준이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나타남을 강조한다.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의 사례를 모두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신흥 경제국의 경우 이 조사 수행을 위한 ‘매칭’ 데이터(노동자와 해당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았다.

기업 내 성별 임금격차

본 보고서는 또한 유럽의 ‘매칭’ 데이터를 활용해 성별 임금격차를 계산했다.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임금 분포의 중하위보다 상위에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전반적으로 시급에서 나타나는 성별 임금격차는 약 20%였으나, 상위 1%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을 살펴보면 그 격차가 45%로 증가한다.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CEO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50%를 상회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1%의 기업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50%에 육박했다.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는 젊은 세대에서부터 나타나지만 노동자가 40세 이상일 경우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부. 종합 및 결론

국제적 차원의 정책 공조 필요

평균임금 정체와 노동비율의 감소는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장과 임금인상의 불일치로 인해 노동자와 가족이 경제발전의 온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욱 좌절하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낮은 임금 인상률이 가계 소비를 저해하고, 특히 다수의 경제대국에서 동시에 임금이 정치되었을 때 총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15년에 나타난 여러 국가에서의 높은 임금 인상률은 국경을 넘어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다.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할 시, 높은 임금 인상률이 지속 또는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기업과 일자리가 지속될 수 없는 수준으로 인건비가 오르거나 수출과 투자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전에 발간된 세계 임금 보고서에서는 너무 많은 국가가 동시에 임금 절제⁴정책을 추구하거나 수출 중대의 측면에서 경쟁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정책공조를 강조했다. 두 경우 모두 역내 또는 전 세계적인 총 수요의 감소나 디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G20 정상회담 의제에 임금정책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2016년 G20 국가들은 임금과 생산성의 실질적 중대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 실행과 지속 가능한 임금 정책 원칙을 수립하여,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등과 같은 강화된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을 통해 임금 인상을 지원하여 생산성 증대에서의 개선점을 더욱 잘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별 정책 수단 영역

지속 가능한 임금 성장과 모두가 경제 발전의 과실을 정당하게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차원에서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또한 장기적인 트렌드와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적절한 정책 대응은 임금 발전과 임금 불평등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이끄는

⁴ wage moderation

구체적인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정책은 각 국가 경제의 패턴과 동인에 기반해야 하며, 많은 트렌드가 비슷한 개발도상의 국가들에게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최저임금과 단체교섭은 기업 내 및 기업 간 임금 불평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차이는 각기 다른 효과를 불러온다. 다수의 고용주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전 국가적, 산업별, 지사별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시에 각 차원간의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기업 내 및 기업 간 불평등이 모두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단체협약 적용 대상을 특정 부문 또는 전국의 노동자에 확대 적용하도록 한다면 앞서 말한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단체교섭 제도가 편협하게 기업차원에서만 적용된다면 기업 내 임금불평등 문제에만 그 효과가 국한될 것이다. ILO는 이미 단체교섭과 최저임금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해당 정책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책도구로서의 최저임금과 단체교섭의 상보성을 강조했다.

- **단체교섭을 통한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사 주도의 신규 이니셔티브**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프로포절과 이니셔티브가 추진되었다. 목적은 점점 증대되는 기업 간 불평등, 특히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불평등을 공급체인 상의 모든 당사자를 단체교섭 협정에 포함하는 것을 통해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일부 기업이 구매자가 최저가격을 찾는 경쟁적 시장에서 기업 차원의 임금 인상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의류 생산을 주로 하는 국가에서 일부 초국적 기업들이 생산업체와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업계 차원에서 다수의 고용주가 참여하는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⁵.

- **최상위 수준의 임금: 기업의 자체 조절? 아니면 더 많은 규제?** 본 보고서에서 나타난 기업 내 임금 불평등의 규모를 감안하면, 기업은 임금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데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다수의 CEO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임금을 정하고, 주주들은 사회적 가치나 기업 성과에 맞게 정당한 수준의 임원 보수를 산정하는 데 실패했다. ILO는 “지속 가능한 기업은 단체교섭과 노동자 정보, 협의, 노사관계 참여 등과 같은 사회적 대화와 모범적 산업 관계에 관여한다. 이는 양측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뢰 및 협력,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추구하면서 서로 윈-윈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ILO, 2007, P. 5) 과거에는 상위 수준의 임금을 조절하기 위해 보상의 투명성과 주주의 “(임원)보수 관련 발언권”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취했다. 이제는 장기적 기업 성과보다 단기 주주가치에 기반한 보상금 패키지 지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한

⁵ ACT 이니셔티브 관련 웹사이트 참조: <http://www.ethicaltrade.org/act-initiative-living-wages>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한 생산성 향상** 전체 임금 불평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기업 간 평균 임금 격차임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한 기업들 간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더 높은 임금과 임금 불평등 감소라는 효과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 성장과 불평등이 서로 교환 관계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양극화와 아웃소싱 때문에 기업 간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라면, 부가가치가 적게 창출되는 부문에서는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적을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 2007 ILO 지속 가능 기업 추구 관련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 개발과 불평등, 차별은 양립할 수 없으며, 창조와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변화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인 이익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양질의 일자리를 존중하는 개발에 대한 요구가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노동자 간 임금 불평등 해소** 취약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보호할 때에만 비로소 노동시장 제도와 임금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해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성별 임금격차(여성과 남성 간 평균 임금의 격차)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본 보고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거의 모든 종류의 기업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평균 임금이 높은 기업에서 그 격차가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기업 차원의 직무평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정부에 의한 이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 노동자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법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중요한 보완적 요소임을 나타낸다. 또한, CEO 급여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같은 남성과 여성 CEO의 큰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 감소 위한 다른 조치

상기 언급된 조치들은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격년을 주기로 발행되는 세계 임금 보고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직전 보고서에서는 임금과 가계 소득이 더 넓은 범위의 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고, 불평등 감소를 위한 다른 정책적 조치를 제안했다.

임금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금과 이전소득 형태의 재정 정책 많은 선진국의 조세제도는 최근 몇 년간 후퇴를 거듭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심화했다. 법인 및 개인 소득세 회피를 해소하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감면은 조세제도에서 사라진 진보성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욱 가파르고 진보적인 조세제도는 임원 보수를 낮추어 CEO가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할 유인 요소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현금으로 직접 제공되거나 공공근로 기회 또는 고용 보장, 식료품 보조 등의

형태로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이전소득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정정책도 필수적이다. 많은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이나 노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인구가 실업, 장애, 산재나 모성보호 등 육아와 가족과 관련한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ILO, 2014b)

종합적 대응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임금과 임금 분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여기에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직업 기술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 구직자와 일자리 간 더 나은 매칭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임시직 또는 파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된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 형태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시장이 있던 개발도상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에게 “정규직”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고용상의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기 다른 고용계약 전반에 걸쳐 이러한 보호 조치를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 간 처우의 평등 원칙을 실행하고, 고용상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며, 간접적인 성차별을 줄일 뿐 아니라 더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을 일부 노동자에게만 제공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맨위로)

글: 앤드류 돕스

번역 : 홍정희(번역팀, ISC)

* 본 기사는 그린 레프트 위클리(Green Left Weekly)의 "The US, not North Korea, is the biggest threat to peace (<https://www.greenleft.org.au/content/us-not-north-korea-biggest-threat-peace>)"를 번역한 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3개월도 채 안됐지만, 미국이 곧 핵전쟁에 착수하리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핵전쟁이 먼 얘기 같지만, 이를 촉발할 수 있는 불씨는 존재한다.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으며,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사소한 오판이나 실수가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실제적 위협에 직면한 북한은 핵무기에 의존해 저항하게 될 것이다.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우리와 이 시나리오 사이에 놓인 중요한 점은 바로 이성을 갖추고 트럼프와 김정은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인종차별주의 발언

이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미국 언론은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것은 모두 북한 측에 있다고 보도한다. 북한에 대한 무단침략 위협을 다룬 기사에서 NBC뉴스는 북한을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이 어떠한 경고도 없이 시리아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한지 일주일도 채 안 돼 호주의 방위산업부장관은 북한을 "세계의 가장 큰 위협"라고 지칭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미국이 각종 전투에서 적어도 1,000여명의 민간인을 살상했지만, 그래도 중국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통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방 세계는 이 작고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부추기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케케묵은 '황색공포'를 들춰냈다. 이는 동아시아인의 "기이함"에 대한 오랜 편견과 함께 피해망상을 증폭시켜 북한 주민들의 인간성을 말살시킨다.

트럼프 같은 호전적이고 편협한 지도자의 치하에서, 이 치밀하고 초당적인 이야기는 무시무시한 핵전쟁 위협을 불러일으킨다.

서방 세계의 북한 때리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북한 사회 전체가 "미쳤고"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비방한다. 두 번째로, 북한은 설득되지도 않고 외교적 합의를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비난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어느 때고 발끈해서 이유 없이 수백만 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북한 때리기는 미국과 동맹국의 엄청난 군사적 압박을 요구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또한 북한을 붕괴시키는데 동참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터무니없이 허황된 것이다. 북한이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스라이팅(gaslighting)"의 확실한 예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미치게 만든 후, 그런 반응을 피해자의 비합리성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여 학대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주변 상황

북한은 남쪽으로는 남한과 북쪽으로는 중국과 접해있다. 남한에는 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그야말로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집결해 있다. 게다가 북한 동쪽에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잔인하게 점령했던, 그리고 지금은 수만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해 있는 일본이 있다.

북한은 자신들을 침략하거나 점령했던 기억이 생생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또한 1950 ~ 1953년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엄밀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전쟁 중이다. 이 군대는 북한을 침략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어떤 나라든지 편집증뿐만 아니라 존재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미군이 "불량국가"로 낙인 찍은 나라들을 침략한 것을 비추어보면, 북한이 방어력을 키우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여전히 살아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북한 인구 1/4의 목숨을 앗아갔고,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 평양에서는 어떤 건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러한 맥락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군사적 선전을 공격적일 정도로 산란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이 군국주의에 "미쳤다"면, 미국도 완전히 미친 것이다.

미국 사회의 선전논리가 북한의 타당한 우려를 아주 쉽게 목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유니콘을 믿는 이상하고 단순한 사람들이라는 근본적 인종차별적 가정 때문이다. 이 가정은 동양인을 설득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무력으로 다뤄야 하는, 거의 인간 이하의 "다른" 것으로 간주하는 오리엔탈리즘⁶ 논리에서 기인한다.

북한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도 괴리되어 있다. 북한은 유의미한 전력투사능력⁷이 없다. 북한의 해군 해상 함정의 작전 범위는 해안에서 약 50 킬로미터 내외이며, 그나마도 미군 때문에 범위가 남한으로 국한되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동맹국이며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무력은 억제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사일과 핵무기는 어떨까? 북한은 4월15일 미사일 시험발사에 실패했지만 미사일을 일본에 발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격만으로 서울을 초토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이에 대응해 미사일을 요격할 텐데 왜 그렇게 하겠는가?

이러한 일방적 공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거 없는 "미쳤다"는 주장밖에 없다. 물론 그들이 오판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특히 위험하다는 주장은 거의 언제나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길길이 날뛰며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유치하고 비인간적이며 인종차별적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한다는 주장도 얼토당토않다. 북한은 미국의 수천 마일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며, 이를 개발하는데도 수년이 더 걸린다. 설사 목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아주 일정치 않은 미사일 시험발사 역사를 보면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겠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에 비해 무기가 수천 배 적다.

⁶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문제제기를 통해 제기된 것을 의미한다. 서구적 시각 내지 유럽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서구인들이 동양에 대해 갖고 있다고 주장되는 사고·인식·표현의 일정한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지적한 것이다. (참고: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77XX61300844>)

⁷ power projection capability 비교적 먼 거리에서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되는 군사행동인 원거리투사능력

미국 안보에는 북한 핵 위협보다 케이블 뉴스가 훨씬 더 위험하다.

1) 협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적으로 미국의 공격을 막으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상을 시작하면 되지 않는가? 협상이 타결되면 양 쪽 모두 벼랑 끝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가 세계를 향해 문을 개방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그 간의 모든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미쳤다"는 주장이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면, 앞서 말한 통념은 투사의 전형적 사례이다.

과거 협정을 배반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다.

여기서 주요사건은 1994년 양국이 서명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기본합의서(제네바합의)"와 관련이 있다. 제네바합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북한이 경제 정상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핵개발 동결을 약속한 것이었다.

협정 이행을 위한 선의의 표시로 북한은 제한적 무기 사찰 보고서를 제출했고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취소했다. 또한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에너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은 핵 무기화를 할 수 없는 경수로 2기가 건설될 때까지 증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의 즉시 합의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 협정 서명 2주 후,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이 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유화정책"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의회는 증유 제공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은 제네바 합의문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미국은 또한 4년 넘게 경수로 건설에 대한 첫 예비단계 조차 착수하지 않았다. 그나마도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합의서 상의 일정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미 의회가 북미 관계 정상화 노력에 제동을 걸었고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도 합의 이행에서 한발 물러섰다.

북한은 최소한 4년 동안은 합의 이행을 위해 협력을 했으며, 실제로 핵 시범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핵 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북한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1년 새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야 이 시범사업을 본격적인 무기개발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약속을 어길 때는 이에 맞섰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이후 2003년에 시작된 북한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6자회담까지 일관되게 이어졌다.. 당시 6자회담으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가 확실히 됐다.

그러나 미국이 마카오 은행에 있는 북한 자금 2,400만 달러(269억 5,200만원)의 동결조치

해제를 거부하면서 6자회담이 결렬되었고, 6개월 후에 북한이 첫 핵무기를 실험하게 됐다. 하지만 동결된 2,400만 달러만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북한 핵위협은 없었을 것이다.

2) 위선

북한이 억압적인 정권 하에 있는 나라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은 아니다. 미국이 도덕적 잣대로 적을 규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잔인한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때론 제재하기도 했던 미국의 오랜 역사를 보면, 미국이 지지하거나 반대할 국가를 결정할 때 인권이나 자유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키스탄이 지하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북한의 15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개탄을 덜 하지 않는가.

북한과 달리, 파키스탄은 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으며 미국의 군산복합체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주 국가를 표방할 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을 추구한다. 미국이 협상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핵전쟁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미국 국민)에게 달려있다.

[‘디파이언트’⁸ 축약판. 앤드류 돕스는 텍사스 주 오스틴에 거주하는 활동가이자 조직가이며 작가이다.]

⁸ Defiant. ‘반항적인, 도전적인’이라는 뜻이 있다.

2. 같이 한 걸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

(맨위로)

래리 로젠버그(해외통신원, 미국)

번역 : 황정은(사무처장, ISC)



나는 68세고 걱정이 많다. 그리고 현재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동년배는 앞으로 20-30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예상되는 가장 끔찍한 미래를 직접 보지는 못한다. 하지만 내 아이들과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세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속 기후 변화를 걱정했던 나는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민중기후행진에 참가했다. 행진을 둘러싼 기대로 20만명이 집회에 나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다. 정말 잘 된 일이다. 하지만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반대 집회와 지난 1월에 열린 여성행진에 비하면 그 규모가 아주 작다. 참가자 수와는 관계없이, 여론, 언론인, 주 의원, 미 의회, 다른 국가 정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결연한 노력과 더불어 각 현장에서의 정치적인 조직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가 가져올 끔찍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두려운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다. 예상한대로 거의 세계 모두가 증대되는

위기와 여러 전선에서 공격에 마주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기후 변화를 헛소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내각 고위직에 기후변화 부인론자를 임명했다⁹.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대처하는데 엇갈리는 기록을 남겼지만 적어도 기후변화를 문제로 인정했다.

몇 십 년 전만해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은 반이상향적 환상과 같았다. 우리는 거의 매년 기록적인 지구 온도를 목도하고 있다. 인류는 한번도 우리가 현재 오르고 있는 기온만큼 더운 지구를 경험해 본적이 없다.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이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 여러 결과 중에서 히말라야와 안데스 빙하로부터 나오는 담수에 의존해 사는 수백 명이 미래에 극심한 위기에 직면할 것은 예측할 수 있다. 미국, 중동의 여러 국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빈번하게 가뭄과 홍수가 발생한다. 해수면 상승 때문에 해안 지역은 바닷물에 잠기고 있다. 해수면 상승 속도 예상치는 다양하지만 보스턴, 뉴욕, 마이애미, 과야킬, 런던, 이스탄불, 아비장, 뭄바이, 자카르타, 오사카, 상해와 같은 해안 도시는 매우 파괴적인 홍수 피해를 볼 것이다. 내륙 지역의 피해까지 더하면 수십억명이 삶을 떠나야 할 것이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 재배도 어려워질 것이다. 더 많은 가뭄이 일어나고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타깝게도 충분한 먹거리와 마실 것을 위한 투쟁이 이미 극심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기온이 올라간 지구에서는 말라리아와 Dengue열 같은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이 퍼질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질병이 거의 생기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대규모 이주, 그리고 더 많은 전쟁....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태우고 있으며 매년 이산화탄소 40억톤을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그리하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했다. 40만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크게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항상 180-300 ppm 사이였다. 1950년대를 시작으로 이 수치가 급증해 현재는 400 ppm 이상이다.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¹⁰.

[원자 과학자 회보](#)의 경고 문구를 보자.

“조만간 대규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안되면 2100년까지 국가들은 지구의 기후를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기후변화 결과로

⁹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을 대부분 무효화했다. 미 환경보호국 국장이 수년간 공개적으로 청정전력계획에 맞서 싸웠다. 미 에너지부 장관에는 수년 전 에너지부 해체를 제안한 기후변화 부인론자가 임명 되었다. 또한 국무장관은 엑손 모빌 전 CEO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부인론을 제지하는 세력이 되었다).

¹⁰ 이산화탄소 농도의 갑작스런 급증은 인간이 유발한 것이 아니라 증거는 찾기 힘들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온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한 세기 넘게 인정받아왔다. 기후변화에 인간활동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와 “[지구를 둘러싼 담요](#)”,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Kerry Emanuel, MIT Press, 2012)”에서 볼 수 있다.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인류가 의존하고 있는 핵심적인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가? 초국적 기업과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적, 문화적 관행으로 화석연료 연소에 중독된 세계가 문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어떻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엄청나고 시급한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일련의 절망적인 예측에도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빠르게 산성화되는 바다를 생각해보자. 이런 사실을 그냥 무시할 것인가? 아니다. [미해양대기청](#)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100년까지 해수면은 거의 150%정도 산성화가 심해질 것이다. 이런 해양 산성도는 2천만년 동안 경험해본 적이 없는 수치이다.”

바다가 산성화되면 해양 생물 대다수가 적응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¹¹. 먹이사슬 맨 밑에 있는 종에 의존하는 전체적인 생태계가 위협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수천 가지 어류가 서식하는 산호초는 약 5억명 먹이사슬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산호는 더워진 해수 (또는 산성화된 해수)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간다. 산호뿐만 아니라 여러 해양 생물종은 해수 온도 상승이나 산성화로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산호와 해양 생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고 말할 것인가? 주요 식량자원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제 북쪽을, 가장 북쪽으로 가보자. 우리는 북극 영구 동토층이 녹고 함께 얼어 있었던 [엄청난 양의 메탄](#)(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 방출되는 위협에 처해있다¹². 메탄 방출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더 넓은 영구 동토층이 녹고....

현재를 살고 있는 내 세대는 20년 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여러 국가에서 석탄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풍력이나 태양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 우리가 계속 적응하려 노력하고 혁신을 이뤄내고 여기저기 필요한 방파제를 세울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기후변화의 악몽과 씨름하지 않아도 될까?

유감이지만 아니다. 우리는 너무 천천히 변화를 만들고 있다. 다음을 생각해 보자.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대기과 해양 변화와 만연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이전에 예측했던 2°C¹³가 아닌 1.5°C로 제한해야 한다. 이미 1.1°C가 올랐다.

¹¹ 엘리자베스 콜버트 “여섯번째 대멸종: 아주 불편한 역사” 헨리 홀트 & 컴퍼니, 2014

¹² 20년 동안 [메탄은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상승시키는 온도보다 80배 더 많은 기온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¹³ 최근까지 많은 과학자는 2°C 온도 상승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서 전세계적으로

하지만 모든 국가가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것만큼 빠르게 행동한다 해도 지구의 온도는 [2.6°C~3.1°C 오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이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또 있다. 점차적으로 그린란드 빙상이 녹고 있고 바다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남극에 대해 [미항공우주국](#)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남극 대륙 서쪽 아문센 바다의 빙하가 줄어들 것을 막을 수 없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한다. 더구나 빙하가 녹으면서 남극대륙 서부의 빙상도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해수면은 3~4미터 상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삶을 잃게 된다.”

해수면 상승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것일까? 방글라데시만 두고 보다면 2050년까지 [대략 1800만명이 강제 이주해야 한다](#).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미 국립학술원 국가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분기점에 있다¹⁴. 기후 변화의 여러 가지 영향을 모두 피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조금만 더 늦으면 임박한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공포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정책이 끔찍하지만 다가오는 재앙의 길로 우리를 내 몬 것은 그가 아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을 기록적으로 증가시키기도 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당시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며 프래킹을 추진](#)했다. 미국과 다른 대다수 국가는 결과를 생각지도 않고 수십 년 동안 화석 연료를 사용했다. 그 결과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석유 대기업 엑손](#)은 1977년 그들의 행동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막대한 이윤을 위해서 지구를 계속 파괴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묻고자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실이 있다. 우리는 이 재앙이 더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우리 지역 공동체와 국가에서 한마음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개인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2°C 상승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 1.5°C도로 상승폭을 한하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2°C보다 '훨씬 작게' 제한한다”고 언급했다.

¹⁴ 미 국립학술원 국가연구위원회, [“기후변화의 갑작스런 영향: 기습을 잡는다”](#), National Academies Press, 2015. “지구 기후의 역사 연구는 기후 체계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초래하는 ‘분기점’ - 넘었을 경우 빠르고 주요한 변화가 생기는 기준점-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나무의 나이테, 바다 침전물, 얼음 핵과 같은 자료로 볼 수 있는 지구 기후의 역사는 **몇 십 년에서 몇 년에 걸쳐 빠르게 생긴 큰 변화들이** 중간 중간 있다. 이 보고서에서 설명했듯이 자연에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분기점이 있고 인간이 자연 체계에 초래한 변화들은 더 많다. **현재 탄소 방출 속도는 빨라지는 속도로 기후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분기점을 넘을 가능성을 높인다.**”(강조 추가)

못한다.

절망적이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 의도가 분명하게 설명되었기를 바라지만, 상황은 절망적이고 문제는 심각하다. 앞에서 설명한 격변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방안이 있고 그 방안들을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희망의 단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행동해야만 한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들의 정부가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효과적인 단계를 밟아 갈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전력 생산을 풍력과 태양열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주요 전력원으로 이 되도록 빠르고 대규모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과 시설을 대상으로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 필요한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매우 중요하지만 자주 논의되지 않는 것이 한가지 있다. 교통, 난방, 산업 부문에서도 화석 연료 사용을 급격하게 줄이고 이미 대기 중에 있는 과도한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예를 들어 [향상된 토지 관리 기법](#))을 모색해야 한다.

의견 개진과 선동은 우리의 수단이다. 의견 개진에는 공공 교육, 기후변화 부인론 반박, 국가 통치기구와 지역 의원을 향한 로비, 기후변화에 맞선 행동을 할 정부 선출 등의 방법이 있다. 선동에는 직접적으로 화석연료 기업, 기관, 지지자들을 대응하는 것이 포함된다.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단계를 밟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기후변화 활동가로서 평등, 정의,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다른 운동진영과 연대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에너지와 열정을 모아 진정한 대중운동을 만들어낸다면 기후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

[원자과학자 회보](#)를 다시 보자.

“기후 변화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력은 재앙 수준으로 더워지는 지구를 막기에는 전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추세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기후변화 피해는 인류를 괴롭힌 다른 문제들이 별 것 아니게 보이도록 만들 것이다. 이 세계를 고치기 위해 열망과 수단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기후변화보다 더 긴급한 사안이 또 있는가?

3. 변화의 물결

사드배치 반대와 평화 촉구의 최전선, 소성리

(맨위로)

글: 송대한(The 숲 영문본 편집국장, ISC)

번역: 지민경, 예선희(번역팀, ISC)



마을로 통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소성리는 산자락에 위치해 있다. 나뭇잎과 덩굴, 나무 사이로 바람이 통과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났어도 불과하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이 마을은 고요해 보였다.

한 할머니는 이곳의 깨끗한 물과 공기, 집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자랑하시며, “여기는 아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마을의 위치 덕분에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셨다. “인민군들은 예의바르게 행동했고, 이 마을에 북한 병원을 세워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이곳으로 후송했다. 군인들은 마을의 할머니를 보며 고향이 생각난다고 말했다”고 하셨다.

소성리를 통하는 외길을 따라 몇 킬로미터 더 내려가다 보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된 곳이 나온다. 사드는 명목상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 같으나, 배치 지역과 성능을 잘 살펴보면 사드의 진정한 기능이 중국발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탐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드러난다.¹⁵ 사드로 인해 소성리는 아시아 내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 서게 되었다. 마을 주민과 성주 투쟁에 연대하는 사람들은 사드 부품과 운용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필자와 동행인은 사드에 대항하는 마을 주민들의

¹⁵ 사드는 높은 고도에 있는 미사일 탐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성주에 배치해서는 남한 인구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는 서울을 목표로 한 중단거리 미사일을 탐지할 수 없다.

평화투쟁에 대해 알기 위해 소성리를 방문했다.



사람들이 도로 봉쇄를 하고 있는 곳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미의 싱크홀이 그려져 있다.

사드 배치 반대와 도로 봉쇄의 중심에는 마을 주민들이 있다. 가장 젊은 분이 60세이며, 대부분이 80,90세 어르신이다. 음군선 부녀회장님은 “솔직히 우리는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평화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며, 현재와 같은 남북 긴장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남한은 사드를 배치한다. 우리는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은 한국전쟁을 겪었기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 흑시라도 한 개만 떨어져도 온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는 하지 말자. 대화로 풀자”고 덧붙이셨다. 사드 반대운동 관계자들은 이 투쟁이 전자기 방사선¹⁶의 해로움에 대항하는 님비현상¹⁷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반도, 역내,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했는지 설명했다. 사드가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은 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역내 각 국가가 다른 국가의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능가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군비 경쟁을 늘리게 될 뿐이라는 설명도 같이 들었다.

¹⁶ 미 육군의 AN/TPY-2(사드 레이더)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면, 사드의 전자기 방사선은 심각한 화상과 내장기관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 전방 100미터 이내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전방 3,60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허가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을 금해야 한다.

¹⁷ NIMBY (Not in my backyard).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을 인근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



연세가 84세, 85세인 두 어르신은 “1950년 한국전쟁이 나던 해에 18살, 19살이었는데, 그 때 소성리로 시집을 왔다. 그 해에 전쟁이 발발해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였다”고 회상하셨다.

우리들은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312번째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주 인근으로 이동했다. 촛불집회는 겨울의 차디찬 눈과 여름의 폭우를 견디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겨울에는 직접 만든 난로로 추위를 나고, 여름의 폭우에는 비옷을 입고 견뎠다”고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충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

촛불집회는 이 도시에서 사드가 완전히 철거된 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평화와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사드를 막아야만 한다. 우리의 의식이 이 정도로 높아졌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저항하는 이유”라고 김 위원장님은 덧붙였다. 사드 사안의 중요성은 소성리, 성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느껴지고 있다.



“나무를 때면 난로를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 사이에 놓고 불을 피워 겨울을 났다”고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

밤 9시쯤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소성리로 돌아갔다. 도로를 봉쇄한 곳 옆에서는

오징어와 고구마를 난로에서 굽고 있었고,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날 밤, 한 가족이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나섰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타를 치고, 딸은 플룻을 불고, 아들은 난로의 불을 맡고 있다. 사실 이 가족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학창시절 때 예술 운동가로 학생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 부산에서 진행되던 촛불시위에 꾸준히 참여하다가, 이번 주말에는 캠핑을 가는 대신 텐트를 이곳에 깔기로 한 것이다. 필자의 동행인이 기타를 들고 연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가 이 투쟁 공동체로의 길을 열어주었고, 필자는 그 길을 따라 들어갔다.



“이 기타 연주해도 될까요?”



음악회의 주인공 가족

함께 한국의 민중가요를 부르고 나서, 그녀는 사회운동에서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비틀즈의 “에스터데이”, “렛잇비,” “이매진”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일어나야 했지만, 사람들이 “한 곡 더”를 외치는 통에 자리를 뜨지 못했다. 30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음악,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막걸리로 다져진 유대감이 아침까지 이어졌다. 필자의 어색함이 가시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가갈 수 있었다.



필자가 가톨릭 미사에서 노래를 부른 정진석씨에게 칭찬의 한 마디를 건네자, “나는 공공장소에서 한 번도 노래나 기타를 연주해 본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그는 대구에서 왔고, 4월 26일 투쟁 이후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던 그 날¹⁸, 800명의 경찰이 도로 점거투쟁을 하는 사람들과 어르신들을 짓밟고 사드의 주요 부품을 기습적으로 들어왔다. 4월 26일 이후, 그는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여기서 지키고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김채영씨는 지난 3월에 롯데가 골프장을 사드 배치지로 넘기는 문서에 사인을 했다는 발표가 나자 이 곳으로 와 투쟁하기 시작했다. 6년 전, 미 해군 기지 설립을 반대하는 강정마을의 투쟁을 보고, 그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평화 운동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촛불집회를 계기로 나타난 새로운 정치적 지형에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의 사드 배치 시행 과정을 조사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드가 한국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사이에서 여론은 50 대 50으로 갈렸다. 김씨는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드의 근본적 한계와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면 여론은 사드배치 반대로 돌아설 것이고, 사드를 완전히 막을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어떤 분이 아침식사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면서, 점심은 매우 콩국수가 될 거라고 했다. 필자는 이영우씨 옆에 앉았다. 그는 포항의 기술고등학교의 교사이고 전교조 조합원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밤 현란한 손가락 기술을 뽐내며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보통은 드럼을 친다”고 말했지만, 그가 학생들을 위해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역시 4월 26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곳을 찾고 있다. 그는 숙취가 있다며, 국물을 단숨에 마셔 버렸다.



“숙취에는 콩나물국이 최고”



“오늘 점심은 비빔국수입니다. 여러분들을 여기 계속 붙잡아두려고 이제부터 일주일 치 식단을 얘기해 주려고요.”

¹⁸ 탄핵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필자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역주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떠나기 전까지 계속 듣고 또 나누었다. 떠나는 날, 우리를 버스 정류장까지 차로 데려다 주신 분과 얘기를 나눴다. 그의 부인은 일행이 지낼 숙소를 알아봐주고, 음식 등을 챙겨주셨다. 그녀는 매일 같이 운전을 하고 여기에 온다고 한다. “막히지 않으면 30분 정도 걸리고, 막히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매번 온다고 한다. 가끔 아이들도 데리고 오기도한다고. 결혼 기념일에는 일을 쉬고, 두 분이 망설임 없이 소성리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평화의 최전선을 더욱 강화시킬 많은 사람들의 결의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방문이었다.

4. 국제뉴스

[프랑스]와 권력은 사회당을 약화시키는가¹⁹?

(맨위로)

번역: 정성미(ISC 국제팀)

* 본 기사는 Le Monde의 “Pourquoi le pouvoir a toujours miné le Parti socialiste ([http://www.lemonde.fr/idees/article/2017/05/19/pourquoi-le-pouvoir-a-toujours-mine-le-ps_5130176_3232.html?xtmc=pourquoi le pouvoir a toujours mine le parti socialiste&xtcr=2](http://www.lemonde.fr/idees/article/2017/05/19/pourquoi-le-pouvoir-a-toujours-mine-le-ps_5130176_3232.html?xtmc=pourquoi%20le%20pouvoir%20a%20toujours%20mine%20le%20parti%20socialiste&xtcr=2))”를 번역한 글입니다.

급진적인 사회변화라는 이념을 내세워 승리했음에도, 일단 권력을 쥐게 되면 사회당은 현실에 순응하게 된다. 이것이 사회당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역사학자 마르크 라자르는 주장한다.



패배한 정당이나, 집권 여당이냐? 사회당은 두 선택지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갈등 때문에 파괴될 수도 있다. 시앙스포의 역사학·정치사회학 교수이자 역사 연구소 소장이면서, 로마에 있는 루스²⁰의 행정학회 회장이기도 한 마르크 라자르는 2013년 렌 대학 출판사에서 발행한 『통합 사회당, 역사와 후손²¹』의 공동 저자이다. 그는 사회당이 집권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마주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¹⁹ 까뜨린 뱅상(Catherine Vincent)이 마르크 라자르(Marc Lazar)를 인터뷰하고 쓴 2017년 5월 19일자 르몽드 기사. 지난 대선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당 후보, 브누아 아몽은 1차 투표에서 지지율 5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결선투표에도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 인터뷰 기사는 이러한 사회당 몰락의 원인을 다루고 있다.

²⁰ Libre université internationale des études sociales, 줄여서 루스(Luiss)라고 한다.

²¹ Le Parti socialiste unifié. Histoire et postérité

최근 마누엘 발스²²가 선언했듯, 사회당은 사망선고를 받았는가?

나는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싶다. 사회당이 겪고 있는 위기는 심각하지만 사회당은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위기를 겪었다. 5공화국²³ 시기에 사회당이 권력을 쥐게 될 때마다 수반된 갈등은 사회당이 선거에서 실패하게 만들었다. 프랑수아 미테랑²⁴의 첫 번째 임기 때(1986년에서 총선에서의 패배), 두 번째 임기 때(1993년 총선에서의 완패),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리오넬 조스팽²⁵이 결선투표에도 오르지 못했을 때가 그랬다. 집권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사회당은 커다란 어려움과 내부의 고통스러운 논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사회당이 지닌 문제들이 프랑수아 올랑드의 임기동안 더 악화되었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문제를 크게 키웠다.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과 관련한 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 특히 그렇다. 프랑수아 올랑드가 부르제²⁶에서 한 연설에 나온 유명한 문장, “여러분, 문제는 재정입니다.”는 친기업적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크게 충돌한다.

EU와 관련한 문제도 사회당을 수 십 년간 분열시켰다. 프랑수아 올랑드는 긴축정책으로 돌아서기 위해 예산의 안정성을 위한 조약을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고, 이러한 실패는 사회당 내부에서 이 주제에 관한 분열을 일으켰다. 사회당은 이미 2005년 유럽헌법조약에 관한 국민투표 문제로 이미 심각한 분열을 겪은 바 있다.

5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도 쉽지 않다.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지닌 정당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마누엘 발스가 주장한 것처럼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수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아니면 브누아 아몽이 제안했고 4공화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좀 더 수평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며 ‘정상적’ 대통령으로 있었던 올랑드는 사회당 내부에서의 논쟁만 격화시켰다.

끝으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국가의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분열을 조장했다. 이 문제에는 두 개의 상반된 감수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테러리스트의 도전에 준엄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가 이러한 테러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는지 이성적으로 성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²² Manuel Valls. 올랑드 정부의 총리를 역임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사회당 경선에 출마했으나, 브누아 아몽에게 패배하여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²³ 프랑스는 1958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5공화국이다.

²⁴ François Mitterrand. 프랑수아 미테랑은 사회당 출신 최초로 대통령직에 올라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4년 동안 집권했다. 이는 2000년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바뀌기 전까지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었고,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테랑이 시라크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²⁵ Lionel Jospin. 리오넬 조스팽은 사회당 소속으로 1995년 대선에 나갔으나 시라크에게 패배했고, 2002년 대선에서는 시라크와 르펜에 밀려 1차 투표에서 떨어졌다.

²⁶ Bourget. 파리 교외 북동쪽에 있는 교외.

왜 프랑스 사회당은 대체적으로 집권하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거두는가?

우선 밝혀둘 것은 1905년 국제노동자동맹 프랑스 지부(SFIO)²⁷의 창설 이래 프랑스 사회당이 겪은 모든 위기들이 집권으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치의 대립 때문에 생긴 1920년의 공산당 분열, 1934년의 비시 프랑스에 기울었던 신사회주의자들로 인한 위기, 1930년대 말의 파시즘으로 인한 문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알제리 전쟁은 집권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사회당이 집권했을 때 문제도 함께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창당된 이래로, 사회당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목적, 즉 자본주의와 관계를 끊는 것과 집권하여 정책을 행사하는, 다른 말로 시장경제로 편입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열했다.

두 연구자 알랭 베르구니우²⁸와 제라르 그랭베르²⁹는 이러한 갈등인, '권력이 지닌 오래된 고민'을 세밀하게 이론화하였다. 사회당은 프랑스의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더 자주, 급진적인 사회변화라는 이념과 권력의 현실성 사이의 모순에 직면해왔다.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혁명적이지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와의 단절이라는 이념은 그들 마음 속에 강하게 남아 있다. 그 이상은 강력하면서도 급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1981년의 프랑수아 미테랑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사회주의자들에게 권력의 문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쾌락과 현실의 갈등이라 부른, 매우 고통스럽고 가차 없는 문제와의 대면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사회당의 오랜 역사 전체에서 발견한다. 1924년 좌파연합 시기에 사회주의자들은 급진주의자들과 함께 당시의 정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920년대 말에 레옹 블룸³⁰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과 '행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정부가 권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SFIO가 집권에 성공했을 때, 즉 선거에서 승리하여 압도적인 다수파가 되었을 때는 혁명적인 입장은 잊어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갈등은 1936년 인민전선³¹이 승리했을 때 다시 나타났다. 사회당 내 우파는 너무 멀리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좌파는 이 승리를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1947년에서 1951년까지의 냉전기에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SFIO는 극단주의자라고 여겨지는 두 세력, 드골파와 공산주의자에 대항하여 MRP³²의 기독교

²⁷ 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줄여서 SFIO라고 한다. 프랑스 사회당의 옛 명칭이다. 1969년에 사회당으로 명칭을 바꿨다.

²⁸ Alain Bergounioux.

²⁹ Gérard Grunberg.

³⁰ Léon Blum. 레옹 블룸은 프랑스 사회당 소속의 정치가로 1919년 하원에 진출하여 사회당을 재건하고, 인민전선을 이끌어 1936년 프랑스 최초의 사회당 총리가 되었다.

³¹ Front populaire. 1930년대 중후반 파시즘이나 극우세력에 맞서 좌파 조직들이 연합하여 만든 것이다.

³² Mouvement républicain populaire. 대중 공화주의자 운동. 프랑스의 과거 정당 중 하나.

민주당과 연합하였다. 연합으로 만들어진 중도적인 조직을 운영한 경험은 사회주의자들이 지속적인 불신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보기에 중도적인 조직은 사회당이 집권하는데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근원적 갈등이 크게 문제가 된 마지막 시기는 5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당이 집권하게 된 1981년이다. 이 때 사회당은 국유화와 사회개혁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2년 후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으로 멈추게 된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혁명이 아닌 사회개량주의를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사회개량주의³³를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으로 보았지만, 나중에는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강한 개혁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점진적 개혁을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사회당의 좌파는 브누아 아몽의 정책이 정부 정책이 되기를 바랐는데, 급진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가 프랑스 사회당, 더 나아가 유럽의 사회주의적 정당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가?
반대세력이 되거나 집권세력이 되거나, 패배 정당이 되거나 집권 여당이 되어도 지속된 이 갈등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이 갈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위기, 노동계급의 우월한 역할, 혁명적 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세기 후반, 초기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이론을 내세웠다. 모범적인 정당은 독일의 사회민주당(SPD)³⁴이었고, 전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힘 있는 이 정당은 비록 권위주의적이고 비스마르크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독일에서는 집권하지 못했으나, 사회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90년대에 SPD 내에서 '수정주의 논쟁'이라 불리는 커다란 사건이 발생했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³⁵과 칼 카우츠키³⁶가 맞선 정치적, 이론적 논쟁이었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마르크스의 몇몇 예언들이 맞지 않는다면, 혁명이라는 이상을 버리고 좀 더 사회개량주의적인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항하여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적 교리와 혁명을 옹호했다. 이 논쟁은 공식적으로는 카우츠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시기 이후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개량주의로 기울기 시작했다.

1917년, 마르크스주의와 유럽 사회민주주의 사이에 커다란 단절이 나타났다.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은 레닌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며, 사회민주당은 원칙을 버렸기 때문에

³³ réformisme. 혁명주의를 배격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사회 개량을 추구해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³⁴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줄여서 SPD라고 한다.

³⁵ Eduard Bernstein. 마르크스 교리에 비판을 가한 최초의 사회주의자.

³⁶ Karl Kautsky.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자.

타락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대결은 좌파를 공산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로 양분함으로써 20세기 좌파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920년, 프랑스에서는 SFIO는 당원 다수가 국제 공산당에 다시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 레옹 블룸은 '누군가는 오래된 집을 지켜야 한다.'고 투르의 사회당 회의에서 말했다. 그러나 블룸 자신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해인 1946년까지는 마르크스주의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그는 인간적 사회주의를 지지하였다. SPD는 1959년 바트 고데스베르크³⁷의 회의에서 혁명이라는 교리와의 명확한 거리를 천명하면서 마르크스주의와 상징적으로 단절하였다.

이러한 전환점으로 인해 마르크스주의는 더 이상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을 잡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와 상관없이 좌파의 마음속에 의미심장한 것으로 남아있다.

프랑스에서는 1946년부터 1969년까지 SFIO의 사무총장이었던 기 몰레³⁸가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웠고, 미테랑 자신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마르크스주의로 기울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위기와 같은 교리가 점진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오랫동안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사회적 현실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제3의 길'이라는 또 하나의 논쟁을 겪으면서 끝나게 된다.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사회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영국 출신의 앤서니 기든스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힌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조화를 이룬 정치적·경제적 철학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3의 길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에 의해, 유럽에서는 1997년에서 2007년까지 영국의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에 의해 적용되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연방공화국의 총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 사상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는 변화하였고, 세계화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화는 불평등을 만들지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화해해야 하며, 이제는 사회계층이 아닌 개인들이 중요하다.

1990년대에 토니 블레어는 교육과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을 지원하며 개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 계층에는 서민계층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중산계층도 포함되었다.

³⁷ Bad Godesberg.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본의 남부 행정구

³⁸ Guy Mollet. 프랑스의 총리를 지낸 사회주의 정치가.

이러한 변화는 유럽 사회주의의 역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아마도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의 논쟁보다 더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이 변화는 정치 판도에서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좌파와 우파의 대립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사이의 대립 때문에 흐려졌다. 중도 좌파는 낙관주의를 품게 되었다. 국가의 역할은 작아졌다. 사회권과 함께 개인의 의무와 책임도 중요해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든 사회주의 정당들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을 흔들어 놓았다. 그들 중 다수는 그들이 제3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에피네 당³⁹이라는 눈에 띄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왜 프랑스 사회당은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는가?

왜냐하면 이러한 제3의 길이 자유주의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고, '사회자유주의'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프랑스 좌파 안에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집권했을 때, 프랑스 사회주의자들 역시 사회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전처럼 사회개혁주의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역사적인 것이다. 1990년대 말에 제3의 길과 관련한 논쟁으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격분했을 때, 1997년에서 2002년까지 권력을 잡았던 조스팽 정부⁴⁰는 프랑스 공산당과 녹색당 등 다수의 좌파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전술적으로 제3의 길로 나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문화적인 이유도 있는데, 프랑스 좌파들은 제3의 길이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회당이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문화적인 자유주의를 받아들일 만큼 진보적이었다면, 경제적 자유주의도 편안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군주정치에서 물려받은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를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지닌 프랑스에서 사회당은 그러지 못했다.

끝으로, 제3의 길은 좌파와 우파의 분열로부터 벗어남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정치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1789년의 입헌의회에서 여러 정당들이 자리 잡은 위치로 좌파와 우파가 정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가 이 분열을 발명했기 때문이다. 좌파와 우파는 최고의 구분인데, 사고방식, 문화, 정치적 행동방식을 구조화한 역사학자 르네 레몽은 이것을 수마 디비시오(명확한 구분)⁴¹라고 불렀다.

좌파와 우파라는 구분은 5공화국 기간 동안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통해 과반을 얻게 하는 투표방식을 지닌 선거법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경제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좌파와

³⁹ parti d'Epinay. 프랑스 사회당을 뜻한다.

⁴⁰ 당시 대통령은 시라크였지만 1997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하여 조스팽이 총리가 되었다. 조스팽은 취임 이후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폈다.

⁴¹ summa divisio. 라틴어 표현이다. 영어로는 The principal division.

우파 사이의 대립은 점점 어려운 것이 되고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이 구분은 다시 명확해진다. 지난 대선에서 에마뉼엘 마크롱이 이 구분을 어지럽히기는 했지만.

제3의 길을 받아들인 국가가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사회자유주의의 모든 지지자들이 그 결과를 알고 있다. 제3의 길은 기적의 해결책이 아니다. 확실히 제3의 길은 그것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을 낮추었다. 그러나 2008년의 재정 위기 이래로 강화되어온 불평등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제3의 길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그 정책들을 시행하는 정당들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예로 이탈리아에서 마테오 렌치⁴²의 민주주의 운동⁴³은 다른 정파⁴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세계화는 우리를 역사적인 격변기에 몰아넣었고, 유럽의 좌파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다. 이 문제는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당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에, 지적인 작업과 이론적 작업이 부실할 때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당은 아마도 가까스로 생존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의 미래는?

사회당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프랑수아 미테랑이 새로운 사회당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 1971년의 에피네 회의⁴⁵ 이후, 사회당이 지니게 된 강력한 힘은 하나의 정책에 관한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해왔다.

그러나 그 힘은 이제 사라졌다. 프랑수아 올랑드의 임기 동안 마뉼엘 발스가 말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좌파들이 사회당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오늘날의 프랑스 좌파는 두 개의 극을 지닌 자기장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극은 멜랑송이고, 다른 극은 마크롱이다. 반대되는 두 힘 사이에서 분열한 사회당은 그 중앙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앙에서 당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회당이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사회당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면 당의 하부조직, 정체성, 전략 등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당은 198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집권했을 때의 권력 행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올랑드의 5년 임기가 지나간 지금,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자기반성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자기반성을 거쳐 그들 중 일부가 ‘오래된 집을 지키게’ 될 것이다.

⁴² Matteo Renzi. 2014년 이탈리아 총리가 되었으나, 2016년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에서 추진한 개헌안이 부결되자 총리직에서 사임하였다.

⁴³ mouvement démocrate.

⁴⁴ Mouvement 5 Etoiles.

⁴⁵ congrès d'Épinay. 1971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Épinay-sur-Seine에서 열린 사회당 회의. 미테랑을 제1서기로 선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레닌 모레노 후보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

(맨위로)

번역 : 배경진(국제팀, ISC)

* 본 기사는 4월 4일자 텔레수르(teleSUR)의 "It's Official: Lenin Moreno Elected President of Ecuador (<http://www.telesurtv.net/english/news/Ecuadors-Lenin-Moreno-Defeats-Banker-in-Presidential-Election-20170402-0037.html>)"를 번역한 글입니다.



야당 길에르모 라쏘⁴⁶ 후보는 여전히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투표 결과 저명한 장애인 운동 활동가이자 라파엘 꼬레아⁴⁷ 정권의 전 부통령이었던 국가연합당⁴⁸의 레닌 모레노⁴⁹ 후보가 당선됐음을 발표했다.

개표율이 99.65%에 이르자 국가선거위원회(CNE)는 모레노 후보의 당선 판세를 뒤집을 수 없고, 이 결과가 에콰도르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모레노 후보와 호르헤 글라스⁵⁰ 부통령 후보는 48.84%(4,827,753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우파 기회창조당⁵¹의 은행가 출신 길에르모 라쏘 후보와 안드레스 빠에즈⁵² 부통령 후보를

⁴⁶ Guillermo Lasso

⁴⁷ Rafael Correa

⁴⁸ Alianza Pais party

⁴⁹ Lenin Moreno

⁵⁰ Jorge Glass

⁵¹ CREO-SUMA alliance

⁵² Andres Paez

51.16%(5,057,149표)의 득표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국가선거위원회에서 공식발표가 있는 후 모레노 당선자는 키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예가 되기 위해 정치를 품격 있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모레노 당선자는 공식 결과에서 라소 후보보다 2퍼센트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자 일요일 밤에 승리 선언을 했다.

국가선거위원회에서 투명하고 성공적인 투표과정이었고, 모두 결과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예상했듯이 라소 후보와 빠에즈 부통령 후보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모레노 당선자는 라파엘 꼬레아 전임 대통령 하에 도입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UN 장애 및 접근성 특사로 일하기 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통령으로 재임했다.

1998년에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후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모레노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과 공교육 지지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역시 꼬레아 정부에서 일했던 호르헤 글라스 후보는 이제 부통령에 취임할 것이다. 새로운 행정부는 5월 24일에 공식 출범한다.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이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고, 시민혁명 하에서 수많은 사회적 성과가 창출된 상황에서, 모레노 당선자의 승리는 에콰도르뿐 아니라 더 넓게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우파 정권으로 회귀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달리, 에콰도르는 지난 20년간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휩쓸었던 핑크타이드의 일부로 존속할 것이다.

기야우메 롱⁵³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은 선거 결과에 대해 “이것은 더 평등한 에콰도르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계획에 대한 긍정적 지지다. 우리는 지난 십 년 간 사회 진보에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잦은 교체와 더불어 몇 십 년 간의 사회경제적 불안정 이후, 꼬레아 대통령 하의 국가연합당은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세입을 세 배로 증가시키고, 보편적 의료보험 교육제도를 확대했다.

일요일에 치러진 선거는 모레노 당선자가 지난 2월 19일 1차 투표에서 0.7%도 안 되는 차이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치러진 2차 투표였다.

일요일의 2차 투표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수는 에콰도르 내 1,250만 명, 국외 약 40만명이었다. 재외국민 투표소는 마이애미, 뉴욕, 런던 그리고 마드리드에 설치되었다.

⁵³ Guillaume Long

모레노 당선자는 수 백 명의 지지자들을 동반하고 키토 북부에서 투표했다. 라소 후보는 가족들과 함께 그의 고향 가야킬⁵⁴의 항구도시에서 투표했다. 꼬레아 대통령도 다른 장관들과 함께 수도에서 투표했다.

꼬레아 대통령은 투표를 하면서 “지난 몇 년간 극우세력의 반동으로 인해 지금이 이 지역(라틴아메리카)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다. 에콰도르의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른 오후부터 모여있던 모레노 후보의 지지자들은 키토 중북부에 위치한 국가연합당 중앙당사 외부에서 모레노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다.

남미국가연합(UNASUR) 선거사절단과 함께 호세 무히카(페페)⁵⁵ 우르과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제 참관인이 선거를 감독했다. 무히카 우르과이 전 대통령은 선거가 투명했다고 확인했다.

국가선거위원회와 국제 감독관들이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있던 1차 투표와 비슷한 양상으로, 야당에서는 부정투표에 대한 루머를 소셜미디어에서 확산시키고 있다.

⁵⁴ Guayaquil

⁵⁵ Jose “Pepe” Mujica

국제전략센터는 연대와 변화를 통해 대안사회를 지향하며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센터의 자문위원을 비롯해 월간국제동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자문위원

남문희(시시안 한반도 전문기자)
신순애(탁틴내일 상담가)
이정철(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충각(노동운동 활동가)
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대표)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존스캣(Reciprocity)
클런더 로라(해외입양활동가)
차미경(기록학 연구가)
허석렬(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해외통신원

안드레아 슈니처(학생, 활동가)
로날드 콜린스(활동가, 미국)
래리 로젠버그(환경활동가, 미국)
메르시-리아리나스 앙헬레스(평화여성파트너, 필리핀)
자넷 찰스(평화의 증인, 미국)
까뜨리나 사문(그레인, 인도네시아)

편집장: 심태은

교열팀: 가빈 후양, 릴리안 헉스터

번역팀: 예선희, 지민경, 홍정희

국제팀: 배경진, 이로미, 정성미